

폐기된 채상병특검법...野 “22대 국회서 보자”

국힘, 최악 상황 피했지만 민주당·혁신당 “재추진” 여야 대치국면 길어질 듯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폐쇄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됐지만 부결되면서 정국도 요동칠 전망이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힘으로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내부에서도 이태원 표가 나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이 길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에 본회의에서 표결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는 특검 도입 필요성과 정당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야권이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대통령 격노’를 지목하고 여권은 ‘대통령 탄핵

의도’를 제기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변했다.

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안 부결 이후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법안이 부결되자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 과정의 외압이나 사건 조작 의혹이 있으니 규명하지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은하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22대 첫 의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다른 야당도 당론으로 채택하시길 제안드린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해병대원특검법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선 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로텐더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윤, 거부권 행사할 듯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

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대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등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개정

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자지원법 野 단독처리 통과

민주유공자에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들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연합뉴스

정쟁에 날새다 민생 견어찬 21대 국회

반도체·AI 육성법 등 폐기 고준위방폐물법은 휴지통 법안처리율 36% 역대 최저

4년 내내 국회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였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

국가 전략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자고 있다가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송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 진흥하는 토대를 만드는 취지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가 막판에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채상병특

검법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로 정쟁이 격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도 폐기된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료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BYUN.G.U

SALE 5.22 ~ 6.8

70%~50%

변지유 창립 45주년 맞이 감사세일

이월 상품 70~50% 세일 | 신상품 30% (방블라투스 제외)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 062-222-7205 / 010-9287-7205